

## 大學制度 改善을 위한 하나의 提言

大學 存立의 목적과 의의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대학이 개인과 사회 및 국가에 끼치고 있는 지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대학의 사명과 임무가 막중함을 절감하게 된다.

중세의 대학은 그 설립 목적이 敎養人을 기르는데 있었다. 교양이란 뜻의 Culture(Kultur)는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어원은 “경작하다, 재배하다”의 뜻을 지닌 것이다. 밭을 경작하듯이 心田을 갈고 다듬어 개발하는 것이 곧 교양의 근본이다. 교양은 개발하는 것이므로 生成의 意味를 가진다. 자아를 형성하고 자기의 인격을 기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키워 국가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것이 교양의 목적이다. 편협되기 쉬운 인간성을 대학이라는 광장에서 확장해 나가야 하고, 균형과 조화미를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양은 필요불가결의 요소다.

중세의 고전적 대학관에서 근대의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부터 大學觀은 바뀌게 된다. 인간능력의 종합적 발달을 도모하고 조화 있는 인격체 형성에 역점을 두는 교양교육이 과학적 지식의 중요성, 전문기술훈련의 필요성 등으로 고도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을 대학에서 길러 내야만 했다. 따라서 오늘의 대학에서는 교양이나 전문기술만 갖춘 편협한 사람을 배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調和된 사람을 배출해 내야 한다. 전문지식과 기술은 직업선택의 요건이 되어 사회적응과 활동의 출발점이 되고 그들이 닦고 길러 온 교양은 그들을 따듯한 인간미를 지닌 인간으로, 때로는 심원한 철학적 깊이가 있는 인간으로, 또는 탁월한 예술적 안목을 가진 인간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 전체를 상승시키게 된다. 같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풍부한 교양을 갖춘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조화로운 인간이고 교양에서 배태된 건전한 사고와 교양이 바탕이 된 폭 넓은 想像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양을 갖춘 전문지식인을 양성해 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大學制度와 敎科課程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다른 점은 더 심도있는 교수의 내용과 폭 넓은 교양에 있을 터인데 상당수 대학, 특히 理工系列 대학에서 전문지식 위주의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위상을 낮추고 있고 결국 대학교육의 목적에 어긋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한 종합대학교에 100개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학과를 두어 학문분야를 細分化하는 것이 바람



木浦大 總長 裴 鍾 茂

직한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문이 세분화되는 것은 곧 전문화를 뜻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偏狹化를 뜻하기도 한다. 오늘날 대학의 학부과정은 종래의 대학 범위와 역할을 대학원에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더 심원하고 정칙한 학술적 이론이나 최첨단적 학문의 현묘한 깊이는 대학원이나 그 이후에 정진하면서 배우고 깨치며 연구되어야 할 일이다. 어문학부에서 다양한 어문학을 접하다가 3, 4학년 때 학생의 개성과 소질 및 취향을 살려 일정 분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현행대로 국어국문·영어영문·중어중문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는 신중히 비교·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학문은 인접학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꽃피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만한 대문호를 배출해 내고 또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키워 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교육부 산하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大學制度改善委員會를 두어 반백년이 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국의 대학제도를 참고하여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대학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가 오래 가면 그 제도에 익숙해져 비판력을 잃게 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버리기 쉽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을 한꺼번에 개선하려는 것은 무리다. 우선 국립대학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한 권역이나 같은 지역에 같은 학과가 10여 개 이상 있어서 거의 똑같은 교과과정으로 교수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가급적 지역별 특성과 학과의 전통 및 여건에 맞게 系列化·特性化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에서 서울대학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국립대학은 圈域別로 묶어 제편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기권, 강원권, 광주·전남권 등 광역화된 권역에서 대학의 정원, 교과과정, 특성화, 계열의 조정, 대학간의 연계화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제도로, 그 중에서도 大學의 制度改善이라고 생각한다. ■